

후마니타스칼리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다섯가지 쟁점 놓고 두시간 반 열띤 토론

김수혁 기자 sherik@khu.ac.kr
이서림 기자 sllee1001@khu.ac.kr
이후송 기자 hooseung.lee@khu.ac.kr

지난 5일, 우리신문은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와 후마구조대를 초청해 후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문제,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 폐지 및 ‘우사세 폐지 반대 위원회(위원회)’ 해산, 교양 강좌 개수 축소, 협의 없이 진행된 대학영어 인원 증가가 주요 안건이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후마 이영준 학장, 김민철 세계와 시민 PD 교수, 고봉준 중핵교과 PD 교수, 고인환 글쓰기 PD 교수가 후마 측 패널로, 박리리(사회학 2016) 대장, 배호연(사회학 2017) 대원, 백하연(사회학 2017) 대원, 김보경(사회학 2016) 대원이 후마구조대 측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 참가자 외에도 약 30여 명의 학생, 교수, 직원 등이 참석했다. 진행된 토론 내용은 가독성을 고려해 편집했다.

도입발언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첫 번째 안건으로, 학교는 ‘대학영어 인원 증가는 과목 전체적인 증감이다’라고 주장하지만 후마구조대는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대학영어 교수들은 이를 전혀 몰랐으며, 과목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조정이

논의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11월 말 개편 설명회 자료를 보면 조인원 당시 총장과 함께 TF에서 6개월에 걸쳐 개편안을 만들었고 몇 개월 지난 다음 교수자들이, 또 몇 개월 지난 다음에야 캠퍼스 당 한 명씩 두 명의 학생이 TF에 참여했다. 참석 학생에 따르면 이미 개편안은 거의 만들어져 있었고 학생들에게는 YES, NO만 물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순서가 잘못됐다. 개편 과정에서 미리 다 함께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논의해야 했다. 학교는 소통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잘 몰랐고 그렇다면 학교에 소통 부족의 책임이 있다.

후마 이영준 학장 : 재도와 TF 발족은 지난해 5월이다. 6월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8월 경에는 총학도 이미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수용했다. 9월 초에는 대학주보를 통해 기사가 나가기도 했다. 에브리타임이나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의 당시 기록을 보면 이미 학생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교육 과정 개편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것이다. 정부의 교육과정 개편도 그렇듯이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물어서 일을 진행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 물론 그러다보면 소

▶세계와 시민 교과 신설, 성급했나?

통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후마가 처음 출범한 이후 재개정 작업이 꾸준히 이뤄졌다. 현재도 교과목에 대해 학생 의견을 끊임없이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와 시민 교과 신설, 성급했나?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개편에 대해 학생들이 잘 몰랐던 것은 개편이 너무 급하게 이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간의 가치 탐색(인가탐)’이나 ‘시민교육(시교)’,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를 만들 때는 몇 년간 투자하고 논의했다고 알고 있다. ‘세계와 시민(세시)’은 6개월 만에 만들었는데,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나왔다는 기획이 왜 그렇게 급하게 진행돼야 했는지 문이다. ‘박에서 문명까지(박문)’가 새로 나왔을 때도 학생 불만이 많았다. 급하게 만들어져 체계도 제대로 안 잡혀 있고 수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후마 이영준 학장 : 후마 출범 당시 모두가 놀랐다. 대학이 취업 학원으로 전락한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었다. 인문학을 중심으로 둔 후마는 경희대학교의 상징이 됐다. 작년부터 준비한 재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필수교과 정원은 25명으로 줄였다. 이는 대학도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해냈다. 짧은 세대가 어떤 미래를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려한 결정으로, 새로운 교과도 만들었다. 후마는 도약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에 따른 고통도 있었다. 소규모 강의를 위해서는 중핵 교과 등 과목 중 하나인 우사세를 필수교과에서 선택과목으로 바꾸어

했다. 그렇지만 후마는 강의와 강사를 줄이지 않았다. 후마는 출범 당시 일반 강사의 2배에서 3배의 강의를 지불하는 60여 명의 객원교수로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간 절반 이상이 비정년전임교수로 전환했다. 타대보다 등록금이 백만 원 이상 낮은데도 불구하고 교비용의 교양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후마구조대 학생들의 주장에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학교의 교육적 비전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선한 의지를 폄하하지 말아 달라.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자.

▶안건1. 개편과정의 소통문제 : 소통 적절하게 이뤄졌는가?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학생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일부 교수자들만 개편 내용을 알고 있었다. 총학생회(총학)과

교육 과정 개편은 일반적으로 타다운 방식이다. 물론 그러다보면 소통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재개정으로 교과목에 대해 끊임없이 학생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후마 이영준 학장

언론 인터뷰에서 절반 가량의 강의가 사라졌다고 말했는데 그로 인해서 학교 내외에서 큰 오해와 논란이 벌어졌다. 이 책임은 누가 지나? 후마는 그렇게 강의를 줄인 적이 없다.

고봉준 중핵교과 PD 교수

교양교육이라는 후마의 대원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방법이 필연적으로 특정 과목이어야만 한다는 법은 없다.

김민철 세계와 시민 PD 교수

강사법과 시간강사 처우에 관해 우려하는데 전임 회의에서도 어떻게 하면 강사 한 분의 피해라도 덜덜까 고민한다. 대립만을 부각시키기 보다 어떻게 함께 잘 해낼까 고민하면 좋겠다.

고인환 글쓰기 PD 교수

설에 반대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박상용(참관인, 전 우사세 비대위원) 교수** : 그렇지만 세시를 제외하고 강의를 배정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왜 인가탐 등 다른 과목 먼저 배정하지 않았나.

후마 이영준 학장 : 전체 시를 열겠다고 하지 학교 측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학생과 교수자의 반발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해명해야 했다. 오히려 공청회 직전 강의배정 메일을 보냈다고 들었다. 행정 절차라고 하지만 위원회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처사다.

후마 이영준 학장 : 개편 과정 책임자로서, 교원들과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 위원회 등이 개편안을 반대하는데 납짜는 자주 지나서 다소 밀어붙인 측면을 인정한다. 하지만 책임자 입장에서는 무작정 토론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정 반대하지 않음’을 건지 들어야 했다. 위원회가 세시 신

설에 반대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박상용(참관인, 전 우사세 비대위원) 교수** : 그렇지만 세시를 제외하고 강의를 배정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왜 인가탐 등 다른 과목 먼저 배정하지 않았나.

후마 이영준 학장 : 개편 과정 책임자로서, 교원들과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 위원회 등이 개편안을 반대하는데 납짜는 자주 지나서 다소 밀어붙인 측면을 인정한다. 하지만 책임자 입장에서는 무작정 토론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정 반대하지 않음’을 건지 들어야 했다. 위원회가 세시 신

개편의 순서가 잘못됐다. 먼저 미리 다 함께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논의 했어야 했다. 학교는 소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잘 몰랐고 그렇다면 학교에 소통 부족의 책임이 있다.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개편에 대해 학생들이 잘 몰랐던 것은 개편이 너무 급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세계와 시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급해야 했는지 의문이다.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기 전에 지난 과오를 짚고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개편과정을 되짚어 보고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후마구조대 백하연 대원

개편과정 상에 사과할 일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뒤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하는 것이 맞는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후마구조대 배호연 대원

후마 이영준 학장 : PD 교수

가 된 이후 중핵교수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교과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모이자고 했을 때 단체로 거부했고, 지난 학기 교재 개편을 위해 의견 달라고 했을 때 한 분만 응답했다. 이 자리에서 말할 순 없지만 작년, 재작년 중핵교과 내부 인사 문제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중핵교과는 얼굴을 맞대고 내부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안건3. 교양 강의 개수 감축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2015년 11월 18일 후마 학장과 교육운영위원회 간담회에 따르면, 강의 감축 및 강사 해고가 일어났다

고 한다. 그런데 올해에 사실무근이라고 말

셈하시니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려 달라. **후마 이영준 학장** : 2011년 후마 출범 시 학

생기는 이유는 특정 교과목이나 교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선착순에 따른 경쟁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다. 교수자가 엄청난 개수의 강의를 하지 않는 이상 수요를 못 맞춘다.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학생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다. 말씀과는 달리 제감으로는 대해 수강신청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이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학생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다. 말씀과는 달리 제감으로는 대해 수강신청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이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학생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다. 말씀과는 달리 제감으로는 대해 수강신청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이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학생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다. 말씀과는 달리 제감으로는 대해 수강신청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이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학생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다. 말씀과는 달리 제감으로는 대해 수강신청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이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학생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다. 말씀과는 달리 제감으로는 대해 수강신청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이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학생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다. 말씀과는 달리 제감으로는 대해 수강신청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이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학생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다. 말씀과는 달리 제감으로는 대해 수강신청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이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학생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다. 말씀과는 달리 제감으로는 대해 수강신청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이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학생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다. 말씀과는 달리 제감으로는 대해 수강신청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이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학생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다. 말씀과는 달리 제감으로는 대해 수강신청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이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학생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다. 말씀과는 달리 제감으로는 대해 수강신청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이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학생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다. 말씀과는 달리 제감으로는 대해 수강신청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이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학생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다. 말씀과는 달리 제감으로는 대해 수강신청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이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학생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다. 말씀과는 달리 제감으로는 대해 수강신청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이

후마구조대 김보경 대원 : 학생 입장에서 얘기하고 싶다. 말씀과는 달리 제감으로는 대해 수강신청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이

강사 해고가 과연 무관한가? 궁극적으로 후마가 자본에 팔렸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

후마 고봉준 중핵교과PD 교수 : 많은 학생들이 2005년도 이후 강사를 줄이는 대신 계약직, 강의 전담, 비정년전임 교수를 썼다. 강사가 엄청난 수의 강의를 하지 않는 한 전임, 계약직, 강사 순으로 임금이 많다. 강사가 많은 여러 과목을 줄이면 전임교수의 월급과 맞먹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렇지만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수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옳다고 볼 수 없다. 많은 대학이 이를 선택했다. 돈 문제가 아니다. 또한, 고려대나 연세대는 강사법 대비 회의를 했다. 우리는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어떤 의혹이든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유정완(참관인, 후마 전 학장) 교수 : 교양 교육 강화와 교수자의 지위 안정을 위해 공채를 통하지 않고 전임교원으로 전환한 경우는 없다.

후마 김민철 세시PD 교수 : 학교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과연 정확한 진단인가? 원래는 4학기 강의하면 한 학기를 쉬어야 한다. 그렇지만 후마는 8학기로 늘렸다. 한 학기 쉬는 것을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온정주의적인 생각은 잘못됐다. 시간강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 연속학기 초과에 따라 한 학기 쉬는 것은 사실상 해고다. 시간강사의 인권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온정주의적인 생각은 잘못됐다. 시간강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 연속학기 초과에 따라 한 학기 쉬는 것은 사실상 해고다. 시간강사의 인권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온정주의적인 생각은 잘못됐다. 시간강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 연속학기 초과에 따라 한 학기 쉬는 것은 사실상 해고다. 시간강사의 인권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온정주의적인 생각은 잘못됐다. 시간강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 연속학기 초과에 따라 한 학기 쉬는 것은 사실상 해고다. 시간강사의 인권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온정주의적인 생각은 잘못됐다. 시간강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 연속학기 초과에 따라 한 학기 쉬는 것은 사실상 해고다. 시간강사의 인권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온정주의적인 생각은 잘못됐다. 시간강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 연속학기 초과에 따라 한 학기 쉬는 것은 사실상 해고다. 시간강사의 인권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온정주의적인 생각은 잘못됐다. 시간강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 연속학기 초과에 따라 한 학기 쉬는 것은 사실상 해고다. 시간강사의 인권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온정주의적인 생각은 잘못됐다. 시간강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 연속학기 초과에 따라 한 학기 쉬는 것은 사실상 해고다. 시간강사의 인권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온정주의적인 생각은 잘못됐다. 시간강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 연속학기 초과에 따라 한 학기 쉬는 것은 사실상 해고다. 시간강사의 인권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온정주의적인 생각은 잘못됐다. 시간강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 연속학기 초과에 따라 한 학기 쉬는 것은 사실상 해고다. 시간강사의 인권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온정주의적인 생각은 잘못됐다. 시간강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 연속학기 초과에 따라 한 학기 쉬는 것은 사실상 해고다. 시간강사의 인권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온정주의적인 생각은 잘못됐다. 시간강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 연속학기 초과에 따라 한 학기 쉬는 것은 사실상 해고다. 시간강사의 인권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온정주의적인 생각은 잘못됐다. 시간강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 연속학기 초과에 따라 한 학기 쉬는 것은 사실상 해고다. 시간강사의 인권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온정주의적인 생각은 잘못됐다. 시간강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 연속학기 초과에 따라 한 학기 쉬는 것은 사실상 해고다. 시간강사의 인권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온정주의적인 생각은 잘못됐다. 시간강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 연속학기 초과에 따라 한 학기 쉬는 것은 사실상 해고다. 시간강사의 인권

후마구조대 박리리 대장 : 온정주의적인 생각은 잘못됐다. 시간강사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 연속학기 초과에 따라 한 학기 쉬는 것은 사실상 해고다. 시간강사의 인권

